Life p/13

겨울 옷 파는 역시즌 마케팅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5일 금요일 제3022호

Entertainment p/18

영화·드라마 '사도세자' 조명

쇼핑몰서 펀드 투자도 한다

Economy p/05

연예인 투잡 "선택 아닌 필수"

Entertainment p/16

GAME

'경제 살리기' 40조원 쏟아붓는다

최경환 호 활성화 내책

정부가 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재정·세제·금융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8~9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활기찬 경제' 문구를 배경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혁신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 기업 의욕 고취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7% 하향

정부가 이처럼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몰락,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홀로 선전하고 있는 수출마저 위험할 경우 성장과 분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렸다.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6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재정 세제 금융 총동원

- 기업소득 환류세 물린다
- LTV 70%, DTI 60%로
- 카드 소득공제 확대·연장
- 고령층 이자비과세 확대
- 민간프로젝트 조기추진
- 안전투자펀드 5조 조성
- 올 성장률 3.7%로 하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준금리 인하 동반돼야"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순순하게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의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과감한 재정확대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의성서 돼지 구제역 발생… 2개월만에 청정국 상실

24일 경북 의성 돼지농장의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확인되면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이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올해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은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3가지 백신(혈청형 O, A, Asia 1)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관련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3년3개월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는 돼지를 살처분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가축·차량의 이동제한 조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 중인 돼지 1500마리 가운데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 동의 600여 마리를 살처분·매몰했다. /김민준기자 mjkim8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검경 심각한 '불통'에 헛발질

돈가방 압수 사실 경찰 몰라… 치부 드러날까 '비밀 방' 먼저 공개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인천지검과 유씨 검거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설치한 '검찰 총괄 TF'에서 23일 오전 유씨가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씨가 지니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은 행방이 묘연해 타살 의혹이 제기된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을 수색해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해 놓았지만 이때도 경찰 관계자에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다 그날 오후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치재 별장에서 유씨를 놓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돈 가방도 공개했다.

검찰이 23일 갑자기 송치재 별장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털어놓은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유씨의 도주 상황과 사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만들어진 경찰 수사본부는 그날 오전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려고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경찰은 별장에서 유씨를 수행하다 구속된 신모(33·여)씨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씨는 검찰에 송치재 별장 비밀방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이다. 경찰이 별장을 수색하고 신씨 등을 조사하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방의 정체가 경찰을 통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부랴부랴 언론에 먼저 자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5월 25일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을 때에도 검찰 수사관들만 별장을 수색하고 경찰은 철저히 소외됐다.

두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거두고 긴밀하게 수사 내용을 공유했더라면 눈앞의 유씨를 놓치는 것도, 이미 변사체로 발견된 유씨를 못 알아볼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llegible]

오늘 재보궐 사전투표 하세요!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에서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똑똑한 습관·만원의 행복, 글쎄?

기자 수첩

서승희 <경제산업부 기자>

"그 비싼 걸 왜 가입하세요. 전 절대 가입 안합니다."

이동통신사 직원이 무제한 데이터로밍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현재 이통3사는 하루 요금 1만원 안팎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직원의 말이 무색하게 요즘 이통사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제한 데이터로밍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외여행 필수', KT는 '해외여행의 똑똑한 습관', LG유플러스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요금 폭탄을 방지하면서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가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다. 실제 상품의 가입자 수는 상승하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5월 황금연휴 때 데이터 로밍 이용자수는 100% 증가,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이용자수는 150% 증가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은 왜 이 좋은 상품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답은 해외에서 데이터 사용을 꺼리는 일반인에게는 하루 1만원이 높은 가격일 수 있다. 포켓 와이파이 로밍 에그를 이용할 경우 고객은 30% 가량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에그 하나만 있으면 일행까지 휴대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유심카드를 구매해도 된다. 유심 카드 역시 해외 통신망을 이용해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도 있다. 저렴한 숙소를 찾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 봤다. 하루 숙박비 2만원이 넘지 않는 대만의 티이케이오스텔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들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명성이 자자한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라면 회사에 손실이 가더라도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의 신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이런 점을 깊이 새겨야 할 듯하다.

이성한 경찰청장 '가시방석' 이성한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이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최재경 지검장 "부실수사 모두 내 책임"

전격 사의… 검찰 수뇌부 문책 이어질 듯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그러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간부 검사 3명의 사표 제출은 반려했다. 대신 남은 유씨 일가 수사와 도피 중인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 지검장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 이후 여론이었다.

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씨)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세월호 수사팀 검사, 수사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수검사로 거악과 싸운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검찰의 전장을 돌고 돌다보니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낀다"고 했다.

최 지검장의 사표 제출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 지휘라인의 책임자 문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illegible]

뉴스&뉴스

박 대통령,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접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마스조에 지사의 예방 여부와 관련해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25일 오전 중 (예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이상 보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과 피해자보다 과잉 보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24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재단과 기념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사퇴… 동작을 노회찬 야권단일화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24일 사퇴했다. 이로써 동작을 야권 후보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됐다.

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후보가 내 몫까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광주와 동작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사퇴 전 당 지도부와 미리 상의했냐'라는 질문에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두 후보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나, 단일화 방안을 놓고 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두발로 즐기는 레이싱 게임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페달을 굴려 레이싱 게임 속 자동차에 동력을 전달하는 '불스 자전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신 사진 유출 '더 커진 의혹'

양다리 쭉 펴져 있어…"누군가 옮기거나 손 댄 흔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사진이 유출된 후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유씨 수사 기록의 하나인 시신 사진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유포됐다고 밝혔다.

유포된 사진은 경찰이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찍은 것이다.

사진 속 시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채 수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최초 발견자 박모(77)씨가 말한 대로 시신은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로 고개가 왼쪽으로 돌려져 있다. 머리 부분은 백골화가 진행돼 흰 머리카락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아래에는 벙거지 모자가 깔려 있다.

시신이 입고 있는 상하의 단추는 풀어져 있다. 시신 옆쪽에서는 구더기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도 보였다. 신발은 벗겨져 오른쪽 운동화가 왼쪽 발 옆에 놓여 있다.

24일 오전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돼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경찰이 공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찰은 유씨의 흰 머리카락이 엉켜있었고 발견 당시 벙거지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쪽 가지런히 놓여있다던 신발도 사진 속에 흐트러져 있다.

유 전 회장이 숨지기 전후로 시신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진 대목이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유출 사진을 보면 양다리가 아주 쭉 뻗어있는데 사체를 옮기느라 발을 잡아서 생긴 것이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댄 거 같은 인상"이라고 말했다.

유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온 뒤 25일 오후께 유족에게 인도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초등교사가 여학생 7명 성추행

피해 학생들 심리치료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33)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4~6월 자기 반 여학생 10명 중 7명을 무릎에 앉히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상적 스킨십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담임직에서 제외했으며 A씨는 현재 병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oh@

GOP 사건으로 의경 지원율 ↑

강원도 육군 GOP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시행된 첫 의무경찰 모집에서 지원율이 크게 치솟았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7월 의무경찰 모집에서 25명 선발을 뽑는데 6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율이 무려 25대 1이다. 지난 상반기(1~6월) 평균 지원율이 18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8%나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년간 3912명이 지원, 430명이 합격해 지원율이 9대 1에 불과했다.

이영열 경기경찰2청 작전의경계장은 "3년 전부터 의경 생활문화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원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이번에는 앞 병장 사건으로 생긴 육군 전방부대 근무 기피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준기자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 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 학년별 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는 것은 현행 가격 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뿐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윤다혜기자

metro HongKong

港男助截肢

metro Russia

Металлисты заявили о себе

헤비메탈 콘서트 열게 해달라!

최근 모스크바의 한 광장에서 300여명의 로커가 헤비메탈 콘서트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한 로커는 "헤비메탈 그룹을 비롯한 모든 록그룹이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서는 보수적인 정교도 단체의 영향으로 헤비메탈 콘서트를 쉽게 열 수 없다"며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 때문에 마릴린 맨슨 같은 전설적인 록스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프다"고 덧붙였다.

metro Brazil

Brics Países criam banco de desenvolvimento e fundo de emergência

브릭스연합 공동발전은행 출범

브릭스 연합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 자금과 함께 공동 발전 은행을 발범했다. 브릭스 연합은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위기 대응 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중국 상하이에 은행 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발범 후 첫 5년 동안 각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 마련에 총력을 가한다. 첫 수장 국가는 인도이며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중국이 그 뒤를 잇는다.

다리 절단 장애인에 새 다리를…

20대 남성 도보로 대만 일주 '모금 행진'…특수 의족 필요성 알리려

두 다리로 걷는 일이 다리 절단 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전직 기자인 왕웨이바오(25)가 도보로 대만 일주에 나섰다.

세 달 전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쓰촨까지 히치하이킹(자 얻어타기)으로 여행하면서 60㎞ 모금 행진을 하는 홍콩인을 만났다. 이때 도보 행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때마침 왕웨이바오는 페이스북에서 올해 초 스탠다드 차타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소녀 선수 리즈위가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한 글을 봤다. 왕웨이바오는 이후 리즈위를 만나 다리 절단 장애인과 의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즈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족의 수명은 길지 않고 성능도 좋지 않아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5분만 서 있어도 통증이 심해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리즈위가 현재 사용하는 탄소섬유 의족의 가격은 약 3만 홍콩달러(약 400만 원)다. 그는 "탄소섬유 의족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 뛸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다.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왕웨이바오는 리즈위의 소개로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한 알렌(24)이라는 남성을 알게 됐다. 자전거 타기와 축구가 취미이던 알렌은 사고 이후 직장을 잃고 저축했던 돈도 다 써버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왕웨이바오는 알렌을 돕는 모금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15일 여정을 시작했다.

왕웨이바오는 안전 많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초등학교와 파출소 등지에서 잠을 청하며 1100㎞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 속에서 일주일 동안 3000 홍콩달러(약 40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 왕웨이바오는 약 60일간 표어를 붙이고 걸어 다니며 다리 절단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족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왕웨이바오는 "두 다리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도보 여행이 힘들지만 굳은 결심과 자신감만 있으면 무사히 마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Partez en vacances l'e

휴가철 집 비우면 경찰이 지켜준다 무료 서비스 인기

프랑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서비스에 나섰다.

리옹에 사는 베로니크는 휴가철마다 아파트 빈집털이로 걱정이 앞선다. 이미 두 차례 빈집털이를 겪었던 그는 올해엔 경찰의 특별 서비스를 신청했다. 휴가 기간과 주소를 작성하면 순찰대가 매주 집을 돌아보는 서비스다.

베로니크는 "경찰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집을 살펴봐 줘서 마음이 놓인다. 빈집털이를 당할때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론알프스 지방에선 총 2901명의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순찰 일지도 기록해

리옹 9구의 경찰서장 아르세르는 "서비스가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가장 높은 편이다.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순찰을 돌고 낮과 밤에 모두 방문한다. 정확한 시간을 두고 순찰을 돌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7월 초엔 순찰을 하던 경찰이 빈집털이를 시도하던 한 강도를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범인을 체포했던 경찰은 "순찰을 돌 때 현관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는지 확인한다. 떠나기 전엔 신청자에게 방문 시간과 순찰 결과를 기록해 알려준다. 강도를 체포하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피에르 필릭실드르 브레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쇼핑몰서 펀드 투자도 한다?"

IT금융, 전통 은행업 위협 첨단 결제기술에 무지점 은행까지

쇼핑몰에서 펀드 투자를 하고 영수증을 스캔해 이미지 정보만으로 결제를 한다?

한국에선 생소한 금융서비스지만 이미 중국·영국 등 해외 금융시장에선 새로운 IT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전통적인 금융업종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예 점포 없이 온라인만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디지털 전용은행의 출연도 임박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등 일부 IT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최근 인터넷 기업들이 내놓은 온라인 금융상품이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시중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할 정도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펀드 자산관리회사와 손을 잡고 '위어바오'라는 머니마켓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위어바오'는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 250만명을 돌파하고서 출시 9개월 만인 지난 3월 8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모집한 자금만 5000억 위안(약 83조원)에 달한다.

고객이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구매대금으로 충전된 돈을 위어바오로 옮기면 자동으로 은행 예금과 국채 등에 투자되는 구조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 예금의 두 배인 5% 이상의 수익을 주는 위어바오는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어바오의 금리는 4%대 중반인 일반 MMF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 상품이 호응을 얻자 인터넷 게임업체인 텐센트와 인터넷 검색업체인 바이두 등 중국 IT업계도 대거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텐센트는 국내 '카카오톡'과 비슷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유사한 펀드를 선보여 두 달 만에 500억 위안을 모집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지급결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IT 금융서비스 업체가 급성장 중이다.

포토페이란 업체는 영수증 사진을 촬영하면 계좌명과 번호, 금액이 자동으로 스캔되면서 결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9개국에 제공 중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한 곳도 두지 않고 모바일과 온라인 환경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보는 디지털 전용 은행도 내년 영국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전통 금융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공습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illegible] 글로벌 트렌드에서 한 발짝 뒤처져 있다.

카카오톡 등 일부 IT기업들이 모바일 송금·결제, ATM 앱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개인정보 보안과 사업자 허가 등 각종 규제의 벽 앞에 가로막혔다.

정부가 앞장서 온라인 금융서비스 업체의 적극 육성을 천명한 중국과 영국 등 해외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IT업체들의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성장하면 기존 금융권의 수익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전 세계에 이런 기업들의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업 진입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llegible] hjkim@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21.82	559.87	2.50	1028.50
(-1.79)	(-3.47)	(+0.040)	(+4.50)

뉴스&뉴스

정수기로 탄산수를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린 탄산수 제조 기능이 있는 코웨이 스파클링 정수기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세계혁신지수 16위

● 우리나라의 혁신 지수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단계 상승한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24일 미국 코넬대학교,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143개 국가의 혁신 능력과 결과물을 분석해 발간한 '세계혁신지수(GII) 201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II는 100점 만점에 55.27점이다. 2012년 21위, 2013년 18위에서 올해 16위까지 꾸준히 순위가 올라갔다. /[illegible]

GDP 성장 7분기만에 최저

●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7개 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0.4%) 이후 최저치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6% 늘었다. /[illegible]

LG전자 영업익 6062억

4분기만에 '흑자 전환'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606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가 2분기 8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MC사업본부는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4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LG전자는 'G3'의 성공적인 출시와 G시리즈·L시리즈Ⅲ 판매 호조,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확보라는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LG전자는 2분기에 1450만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14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휴대폰 전체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900만 대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3746억원, 당기순이익은 4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164.8% 증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고를 위한 마케팅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G3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 G시리즈 및 L시리즈Ⅲ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세요"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자연 박람회'에서 한 아동모델이 장수풍뎅이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8월 6일까지 '자연 박람회'를 열고 'LED 유리 어항세트', '장수풍뎅이 기르기 세트', '사슴벌레 기르기 세트' 등의 상품을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금융피해 막아라"

금감원, 신용정보조회 중지·해킹사고 지급정지 강화

올해 초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김지훈(31·가명)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에서 결제하기가 겁난다. 매일 날라오는 스팸문자와 명의도용 사고 소식이 해킹 등에 대한 우려로 번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경우처럼 해킹과 명의도용 대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범위를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 피해를 막고자 판례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되며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 서비스 차단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우선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고에 직접 이용된 계좌 잔액 가운데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되며 대포통장에는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금이 정지된다.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illegible] 신문로2가 [illegible]
TEL (02)721-[illegible], FAX (02)739-1551
발행·인쇄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illegible]
[illegible]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은?

전순이 주부 경제학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높아져 집안에 불청객 '곰팡이'가 찾아온다.

곰팡이는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꿉꿉한 장마철에는 집안 전체에 퍼져있는 습기 제거가 급선무다.

보일러를 1~2시간 정도 틀어 집안 습기를 없애거나 아로마 향초를 켜두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맞는 천연향을 선택해 침실에서 잠자기 전 1~2시간만 켜둬도 집안 전체를 감도는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또 물과 알코올을 4대 1로 섞어서 벽에 뿌려주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 평상시에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은 물과 알코올을 10대 1로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안 베란다나 욕실에 거뭇한 곰팡이가 보인다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마른 행주로 곰팡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그런 다음 곰팡이제거 스프레이를 사용해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장마철에는 매일 세탁하는 것이 좋다. 땀과 비에 젖은 옷을 쌓아두면 곰팡이가 번식해 악취가 나고, 옷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탁한 뒤 바로 말려야 빨래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키고, 걷기 전에는 햇볕나 향해 선풍기를 틀어 빨래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건조대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건조대 바닥에 신문지를 까는 것이 좋다.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세탁 후 하루가 지나도 완전히 마르지 않을 때는 다림질을 살짝해 건조시키면 된다. /김민서기자 minseo@

마음을 훈훈하게…현대모비스

자동차 속 과학알기 캠페인

2012년 '노벨 프로젝트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3년 '주니어 공학교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들려주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반향을 일으켰던 현대모비스가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담은 신규 캠페인을 선보여 화제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캠페인의 메시지는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과학'이다. 지난 2년간 현대모비스가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과학의 중요성'을 화두로 제시했다면, 이번 신규 캠페인에서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동차 과학기술을 통해 '현대모비스의 과학'을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활용한 광고 소재는 현대모비스가 조만간 상용화할 자동차 속 첨단 과학기술인 '보행자 인식 긴급 제동시스템(AEB-PD: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Pedestrian)'과 '스마트 라이트(ADB: Adaptive Driving Beam)'이다.

'엄마의 마음' 편에 소개된 '보행자 인식 긴급 제동시스템'은 자동차 전방 센서를 통해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동하는 기술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한다. '아빠의 마음' 편에 활용된 '스마트 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상향등 상태를 유지하다가 전방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면 상향등 빛의 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해 앞 차의 눈부심은 물론, 마주 오는 차의 시야확보까지 배려하는 첨단 안전기술이다.

이처럼 이번 신규 캠페인의 스토리 핵심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가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위험해 보인다'는 카피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부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과 환경이 한 순간의 방심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 요소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현대모비스의 첨단 과학기술 이야기로 연결해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번 신규 캠페인에서는 기존 사회공헌활동(주니어공학교실)에서 첨단 과학기술로 광고 소재를 교체함에 따라 '빨노의 끄리 끈정' 편도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라는 이름의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켜 신규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현대모비스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운전자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보행자를 비롯한 아이들까지 폭넓게 고려해 개발한 기술임을 알리는 데 활용한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새 광고 '엄마의 마음' 편

이번 광고 캠페인 제작팀은 "TV-CF를 제작하면서 아이들과의 촬영이 가장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두명우산 캠페인'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이들을 모델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현대모비스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자동차 속 과학 이야기를 아이들을 통해 쉽고 편안하게 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대모비스가 과학'을 이야기하는 당위성까지 확보하는 효과적인 광고라는 평가다. /정익환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영등포역세권 '포레스트힐 시티' 분양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꼽히는 영등포역 바로 앞에 도시형생활주택 '포레스트힐 시티'가 분양 중이다.

영등포 일대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몰만 3곳이 입점한 곳으로, CGV, 롯데시네마, 코스트코, 이마트 등의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러한 다양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배후수요도 많은 편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에는 2013년 기준 16만7761가구 42만1577명이 거주하고 있다.

'포레스트힐 시티' 분양가는 1억290만~1억1890만원대로 책정됐다. 작년 영등포역 일대에서 공급됐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면적대의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임대료 시세는 현재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수준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융자 조건이다. 또 8월부터 입주라 바로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영등포는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비율이 잘 혼합된 자족도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입도 많고 부동산 거래도 잘 되는 편이라 실거주 및 투자용 모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3번 출구 예쉐르 쇼핑몰 6층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 02-541-0344

'물에 빠진 휴대전화, 괜찮을까?'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T 엑스포 주변기기전 전시장에서 한 휴대전화 방수코팅 전문 업체가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KMI, '제4이통' 여섯번째 도전도 무산

총점 62.3점 그쳐…재무건전성이 또 발목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KMI는 다섯번의 좌절을 겪으며 '5전 6기'로 재도전을 노렸으나 여섯번째 도전마저 분루를 삼키게 됐다. 앞서 1번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KMI는 이번에도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한 결과 KMI는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을 받았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단은 KMI가 기술적 능력에서 74.4점을 부여하며 LTE-TDD 도입에 따라 높은 점수를 줬으나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을 매겼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불완전한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재무 여건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MI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온 만큼 제4이통 허가 실패에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1403@

새 경제팀이 공격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경제가 경기순환상 회복국면에 진입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7%로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추진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경제·사회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목표다. 새 경제정책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본다.

| 자영업·공기관 | 영세사업자에 창업융자·컨설팅

자긴진과 권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의 창업 융자 지원과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대표적 취약 계층으로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9만8000명으로 이 중 415만2000명이 고용원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10월에 마련될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보다 큰 2조원대로 조성된다. 기금은 정보 제공과 자금 융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운용된다.

자영업 점포가 난립해 출혈 경쟁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도시에 집중된 소상공인에게는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이 지원된다. 행정구역으로 같은 동 안에 50개 이상의 동종 업종이 밀집한 전국 278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밖에 정부는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선보인다.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갖추도록 상품 개발 지원과 청년 상인 육성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새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계획도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 주는 데 정책 조점을 뒀다.

정책는 이른바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교통과 물류, 에너지, IT 등 유망한 사업 분야별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수출금융 등 자금 지원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협력사업인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과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수의 내실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FTA를 통한 수출 대상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지목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력할 사안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FTA 연내 타결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유라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 지원…FTA 속도
공공부문 경쟁체제 마련…공무원 연금 등 개혁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가공무역이 많던 대중 수출 구조를 바꿔 현지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수출 전략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 경제팀은 경제 혁신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경쟁 체제 확산 등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을 꼽았다.

1단계에서 부채 관리와 기능 점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을 검토해 바백십자원을 재분하기로 했다.

보조금과 직역연금 개혁 속도도 올리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주영·정윤희기자

| 부동산 | LTV·DTI 단일화… 재건축 쉽게

수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그간 지역·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

금융기관 간 LTV와 DTI 비율이 같아짐으로써 과거처럼 한도를 넘어 돈을 빌리기 위해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할 이유가 사라졌다. 총 대출액은 늘어나면서 사실상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DTI 산정시 적용되는 청장년층의 소득안정범위는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별 최대 60세까지로 확대된다. 당장 소득이 적은 40세 미만 무주택 청장년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추진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비로 재건축 판정이 났지만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주택대출 LTV·DTI
		현행기준		개선
LTV	[illegible]	50~70%	60~85%	70%
	[illegible]	60~70%	60~85%	
DTI	[illegible]	50%	50~55%	60%
	[illegible]	60%	50~65%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의 감점 제도를 없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투자도 촉진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두리 박선옥기자

| 中企 | 가업 승계 혜택…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새 경제팀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상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때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 기재부는 보다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연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10%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범위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중소기업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대해 종전 4년간 비용처리 하던 것을 가속상각제도 도입으로 3년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 제조업계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 촉진 차원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민지 김현정 박아란기자

새 경제팀은 기업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 등에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 경제팀의 모습 /연합뉴스

'日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차단 의지

"현재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경상 수지 과다 흑자 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틀안에서 자금을 풀어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불황 그대로 따라가나

정부는 일본과 우리경제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최근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저성장 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 경제 왜곡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패턴과 비슷하다.

실제 경제성장률면에서 일본이 1981~1990년 4.0% 1991~2010년 1.0%와 비교해 우리는 지난 2001~2011년 4.4%, 2012~2013년 2.6%였다.

물가상승률에서도 일본이 1981~1990년 2.1% 1991~2010년 0.3%였고 우리는 2001~2011년 3.3% 2012~2013년 1.8%와 유사한 흐름이다.

이기에 장기간 지속되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급속한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도 닮은 꼴이다.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우리의 경우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정책] 어떤 의미 있나

내수 활성화·민생 안정·경제 혁신이 골격
돈빌려 경기부양, 과잉 부실투자 우려 논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들의 그릇된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낮춰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상 회복국면에 진입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에는 경기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도 세계경제 둔화 경쟁국 추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발표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준공연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것은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부진→내수부진 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팽배하며 시중의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자금·중소기업,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이미 수치로도 제시됐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에 최저치다. 전년 동기대비 3.6% 성장해 5분기만에 성장률 증가세가 꺾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7%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재계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도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금융 등을 묶은 40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 경제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내수경기 활성화 실효성은 글쎄

벌써부터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 부족분이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40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추경예산이 아닌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새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 외환 지원책은 전체 40조원 중 26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며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될지 미지수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LTV·DTI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 ▲국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의 정책은 결국 부채를 키워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빚 내줄테니 투자하고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과잉부실 투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거래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부작용은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다. 거래활성화의 대가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쇼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환영…"유보금 과세는 신중해야"

경제 단체들은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정위주였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기회복이 공고해 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매출액 중 내수비중이 86%에 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이 내수경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새 경제팀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기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왼쪽)과 허창수 전경련회장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은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 인건비 미사용 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경련도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균기자

케이블TV 2년차가 말하는 입사 노하우는?

영업경험 직무이해력 강조… 현장서 '신뢰' 배워 도움

"나군 지원자들도 좋은 있으니까 그것을 높기할 수 뮤단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효섭(왼쪽 사진) 현대HCN 신인 영업팀 주임의 말이다.

전세계를 뒤덮은 불황에 대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군살빼기에 여념없다. 이 같은 경제상황은 '취업 빙하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그 가운데 유료방송업계에 당당하게 입사한 2년 차 직원을 만나봤다. 태권도 3단을 포함, 총 10단의 무술의 달인 김효섭 주임과 해외 봉사 동아리를 이끌었던 임주희(오른쪽) CJ헬로비전 지역관리자(RM)가 그 주인공.

특이한 이력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인터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전적인 결론에 다다랐다. 그건 기본의 충실함이었다. 학점 3점 중 후반, 900점 안팎의 토익점수 그들이 밝힌 '스펙'은 이색적인 이력 속에 더 빛났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남제호 메리츠화재 대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영업통'이라는 것. 그 출발점에 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입사 노하우는 무엇일까.

임주희씨는 "입시 지원할 때 위기상황에 맞선 '대담함'을 강점으로 어필했다"면서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따리 장사 등 영업을 경험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옷가게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방문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그렇게 현장에서 고객과 아이 콘택트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은 그녀만의 자산이 됐다.

김씨도 "고등학교 때 용산 미군기지에서 구두를 판매했다. 영어구사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유명 축구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외국인이 지나갈 때 축구선수 이름을 던졌다. 호기심이 생긴 외국인은 관심을 보였고 그 관심을 발전시켜 구두 판매로 이어지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구두 판매 실력을 인정받아 이후 정규직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

임씨는 '신뢰'라는 단어로 답을 대신했다.

"모르는 내용을 질문 받았을 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다. 대신 '몇 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원하는 정보를 들려준다. 이런 것들이 모여 '답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고객에게 심어줄 수 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임씨는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유료방송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싶다"며 "최근 한 친구가 새로 차를 샀다고 자랑하는 데 참 뿌듯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료방송업계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케이블TV를 봤다"며 "당시 TV 옆에 있는 셋톱박스도 유심히 보고, 서비스 기사가 방문할 때도 눈여겨 봤는데 그런 관심을 자기소개서에 녹였고 내년 대리 진급심사를 앞두게 됐다. 누락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서승희기자 sshl4@metroseoul.co.kr

이통3사, 팬택 채무상환 2년 유예

이동통신3사가 팬택에 대한 채무상환을 향후 2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24일 이번에 상환을 유예하는 채권은 총 1531억원 규모로, 팬택과의 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 채권 전액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구매는 시장에서의 고객 수요 및 기존 재고 물량 등 각 사의 수급 환경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팬택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측은 조만간 채권단 회의를 소집, 이통사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티브로드 독거노인에 선풍기 전달

티브로드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공동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1회 희망풍차와 함께 하는 티브로드 신바람 나눔 대축제'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신바람 나눔 대축제는 티브로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를 전달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21일 대구시 서구 이현동 소재 서구문화회관에서 어르신들을 포함해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서구노인회에 선풍기 80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5대,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대를 각각 전달했다.

티브로드 대구방송 직원들과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봉사회는 31일까지 지역 내 취약 계층과 독거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 225대를 순차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kt금호렌터카로 즐거운 제주 여행"

kt금호렌터카는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The-K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kt금호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을 하는 모든 운전자와 제2운전자까지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이 가능하다.

kt금호렌터카가 제공하는 The-K 여행자보험은 제주도 여행 중 kt금호렌터카 대여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및 휴대품 도난, 파손 등에 대해 최대 5000만원(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시) 까지 보상된다. kt금호렌터카 홈페이지(www.ktkumhorent.com) 혹은 모바일 앱의 차량 예약 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임지혜기자 bettar6@

이동통신3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알뜰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모바일 콘텐츠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통3사 서비스로 알찬 휴가 즐기세요"

먹거리·놀거리·볼거리도 '알뜰하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3사의 다양한 서비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통3사의 각종 모바일 콘텐츠나 멤버십 혜택 등을 활용하면 여름휴가 기간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멤버십 카드로 혜택도 알뜰하게!

SK텔레콤은 T멤버십 고객이라면 누구나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호텔 예약 시 7%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8월 말까지는 추가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권도 50% 할인해주며, T멤버십 VIP 고객의 경우 8월 말까지 롯데면세점 VIP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준다.

KT는 올레멤버십 고객에게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15%, 베니건스 20%, 불고기브라더스 20% 등 인기 레스토랑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신사동, 삼평동, 휴대, 용인 보정동, 분당 백현동 등에 위치한 다수의 카페에서 5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추가 포인트 혜택을 부여한다. CGV 영화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5000원에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고 서울랜드 야간 자유이용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캐리비안베이 30% 및 전국 워터파크에서 최대 6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누어진다.

◆알찬 모바일 콘텐츠 효과 톡톡

이통3사의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는 여름 휴가를 지루할 틈 없게 한다.

SK텔레콤은 'T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T프리미엄은 고객들이 고화질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정보이용료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신 인기영화, 드라마, 예능, 코믹 e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T가 제공하는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주문형비디오(VOD) 할인 및 무료 제공에 나섰다. '잡은 집', '우리동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더 박서' 등 스릴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만추', '색계', '러브픽션', '고령화가족' 등 인기영화 24편을 1000원에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U+HDTV'를 통해 지상파, 종편 등 87개 실시간 방송 채널과 영화,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그램, TV다시보기, 최신영화 등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대박영상'도 휴가철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영상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터넷, SNS 등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을 모아 무료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바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웹젠의 9년차 온라인게임 'R2'

엠게임의 11년차 온라인게임 '이터널시티'

아프리카TV의 9살배기 '테일즈러너'

불로초 먹은 국산 온라인게임

'나이트온라인' '뮤' 등 벌써 12살 강력한 커뮤니티·정액제가 무기

국내 온라인게임의 맏형은 넥슨의 '바람의 나라'다. 이 게임은 올해 서비스 18주년을 맞았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형보다 세 살 적은 15세다. 길거리 농구게임 '프리스타일'과 총싸움게임 '서든어택'이 10세다.

제품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런데 알고보면 장수하는 게임이 곳곳에 있다. 줄 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외의 발견'을 하는 기쁨을 누려보자.

엠게임의 '나이트 온라인' '이터널시티' '열혈강호' 삼총사는 도합 33세다. 각각 서비스 12·11·10년째다.

웹젠의 '뮤'와 'R2'도 중장년층에 속한다. 게이머를 만난 지 각각 12·9년째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게임도 유저 만큼의 나이를 먹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아프리카TV의 '테일즈러너'는 각각 11세·9세다.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지 100일도 안돼 사라지는 게임이 적지 않은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어떤 작품은 '불로초'를 먹은 것일까.

장수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트 온라인'의 커뮤니티는 '온라인 계'를 방불케 한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친밀도가 높아지고 정보를 주고 받으며 친구가 된다.

'메이플스토리'의 커뮤니티는 차라리 공포 수준이다. 초등학교 특정 반에 있다고 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이 클래스의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이곳에서 과제물이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내 이슈를 접한다. 즉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기 어렵다.

과금 방식의 차이에서도 생명력이 달라진다.

'리니지' '뮤' 'R2'는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는 '정액제'다. 다달이 돈을 내고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고 아이템을 모으기 때문에 '중도 이탈'이 쉽지 않다.

게이머들은 이에 대해 "강아지가 성견이 됐을 때 주인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즉 꾸준히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박에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수 게임이 되려면 무엇보다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모바일기기가 득세하면서 온라인게임 수요가 줄고 있다"며 "신작은 물론 장수게임의 운명도 모바일게임에 달려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스피카가 화려할까 건족이 섹시할까

게임 캐릭터 '비키니 맵시' 대결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게임 캐릭터들의 비키니 맵시 대결이 한창이다.

엔트리브소프트의 온라인 골프 게임 '팡야'는 여름맞이 그랑프리 대회를 진행하며 '2014 썸머시즌 수영복'(사진 왼쪽) 아이템을 새롭게 선보였다.

인기 캐릭터 스피카와 세실리아의 수영복 아이템은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섹시한 비키니로 헤어 액세서리와 비치할 등과 잘 어울린다. 넬과 루시아의 비키니 수영복은 점박이와 별무늬가 있어 귀여운 매력이 압권이다. 남자 캐릭터인 아지와 맥스의 타이즈 수영복은 코루리기 수경 발찌 등의 아이템으로 남성미가 물씬 풍긴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수영복 아이템은 게임 내 스크래치 카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착용하면 힘 컨트롤 정확도 스핀 커브 5가지 능력치가 조금씩 상승한다.

엔씨소프트의 인기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도 신상 수영복을 공개했다.

건족(오른쪽)의 여성 캐릭터는 풍만한 몸매에 어울리는 화려한 비키니로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진여와 곤여의 비키니도 검정색과 호피무늬의 섹시한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린여의 비키니는 상큼한 귀여움이 돋보인다.

블레이드앤소울의 수영복은 30일부터 N샵에서 '해변의 남자 패키지'와 '해변의 여자 패키지'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게임 내 이벤트 아이템인 '문양수'를 모아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신화기자 ksh@

'이카루스' 즐기고 레노버 노트북 받고

최고 레벨 신규 고객 추첨

글로벌 1위 PC기업 레노버는 8월6일까지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Y50-70'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레노버는 행사 기간 내 '이카루스' 캐릭터의 최고 레벨을 달성한 이용자 중 추첨으로 5명에게 Y50-70을 증정한다.

또 해당 기간 '이카루스' 첫 구매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Y50-70을 제공한다.

'이카루스'는 중세 유럽 스타일의 MMORPG다.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전투, 화려한 액션이 특징이나.

뛰어난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국산 온라인 게임인 만큼 Y50-70으로 게임을 하면 '이카루스'의 화려한 그래픽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Y50-70은 높은 해상도와 그래픽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이다.

/박성훈기자

'하스스톤' 아이패드 300대 증정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첫 무료 게임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에서 신규 이용자에게 아이패드를 주는 이벤트를 연다.

하스스톤 스킨이 새겨진 아이패드 미니 300개를 증정하는 행사를 25일 시작한다. 블리자드는 또 낙스라마스의 저주 출시를 기념해 24일부터 PC방에서 하스스톤에 접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 100골드를 지급하는 PC방 접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스스톤은 공식 홈페이지(http://...) 에서 누구나 클라이언트를 내려받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현재 PC와 맥, 아이패드에서 즐길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아이폰 버전도 개발 중이다.

/박성훈기자

스타일 파는 편집숍, '튀어야 산다'

브랜드 찾아가는 건 '옛말'…아이템 위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구매

한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일컫는 '편집숍'. 상품기획자(MD)의 역량에 따라 브랜드를 선별하고 소량씩 들여와 판다는 점에서 '셀렉트숍'이라고도 부른다. 의류·액세서리·신발 등 여러 아이템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곳이 많으며 매장 콘셉트에 맞게 한 가지 아이템만 집중 공략하는 곳도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라이프스타일숍은 패션 아이템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장식품 등을 갖춰 토털 코디네이션도 가능하다.

이 같은 편집숍의 인기를 반영해 주요 백화점에서는 편집매장 유치에 한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브랜드인 신세계앤컴퍼니를 만들어 본점과 강남점에 배치했고, 제일모직의 10 꼬르소 꼬모는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에 입점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편집매장의 대표적인 에이랜드를 지속적으로 입점시키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쌈지스 클럽 내부 모습, 쌤띵플레이 내부 전경과 제품들, 힙합적 홈페이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쌤띵플레이'

N12공작소의 로봇전구, 정인택 디자이너의 원목 노김오디오, 게이츠샵의 가죽핸드폰케이스 등 60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공존하는 문화공간, 삼수동에 위치한 쌤띵플레이다.

이 곳은 '활력을 주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을 모토로 인테리어 용품, 패션소품, 아이디어 상품, 키덜트 아이템 등을 취급한다. 특히 디자인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닌 일상에 꼭 필요한 실용성과 희소성을 두루 갖춘 제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이 곳을 방문했을 터. 1·2층은 디자인카페, 지하 1층은 디자이너 편집숍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띄는 곳이다.

이와 함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한 데 모아 디자인 그룹을 결성해 지난 6월에는 핸드가진쇼에, 7월에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에 참가했고 오는 9월에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남자의 모든 것, 루이스 클럽

누이까또즈는 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에 28~38세 남성을 주 타깃으로 남성 전문 편집숍 '루이스클럽'을 열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이 곳은 지하 1층에 루이까또즈 가방·신발·액세서리 등과 함께 유럽에서 수입한 40여 종 이상의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지상 2층에는 남성 그루밍과 스킨케어 제품이 구비돼 있다. 특히 지상 1층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바(Bar)가 한 켠에 마련돼 있다. 매장의 상품 판매가 종료된 후에도 이 곳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향후 이 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 컬래버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온라인으로 상품을 결제한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받아 가는 '픽업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한 쇼핑이 될 수 있다고 브랜드 관계자는 조언했다.

◆온라인 편집숍, 키클루

보통의 편집숍과 나르게 수입이 아닌 수출에 주목한 온라인 편집매장이 있다. 키클루(KEYCLUE)는 중화권·영어권의 해외 소비자들이 편하게 한류 패션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중국어·영어 버전의 사이트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시나사이트(중국판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로 일평균 5000여명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곳은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고자 브랜드 담당자,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출신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이 주를 이루며 여성의류, 유니섹스의류, 액세서리 등 2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스트리트브랜드 스토어, 힙합퍼

국내 최대 온라인 스트리트브랜드 스토어인 '힙합퍼'는 카테고리별로 전문 스토어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자이너 전문 스토어인 드샵(De'Shop)을 오픈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는 '라이프샵(Life'Shop)'을 열었다.

브랜드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중심의 소비자 구매패턴이 최근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아이템 위주로 변화한 것이 이번 숍을 열게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라이프샵은 단순 상품 노출보다는 각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스토리텔링 룩북과 이미지 중심 페이지 구성으로 담아낸 것이 여타 온라인 편집매장과 차이를 둔다. 이 곳은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 입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젊은 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504@metroseoul.co.kr

주류업계 휴가지 마케팅 '후끈'

주류 업계 최대 대목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고객 잡기 전쟁에 돌입했다.

오비맥주의 '카프리'는 지난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산 해운대에 '카프리 팝업 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기존의 생맥주 전문점 '씨스데이 파티'에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감상하며 카프리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롯데주류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더 썸머 페스티벌'을 열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는 '처음처럼 존(Zone)'을 설치, 시전행사를 벌인다. '클라우드 존(Zone)'에선 시음게임과 워터 볼링게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하이트진로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변 이벤트 행사를 벌인다.

/정해원기자 pwon@

김영후 교수, '국제관절재건학회' 최고상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장

김영후(사진)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장이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014 국제관절재건학회 범태평양 국제회의'에서 최고상인 '범태평양 임상 과학 연구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센터장은 30세 이하 젊은 환자의 고관절 수술에서 마찰면의 재질을 비교한 논문을 통해 재료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 논문으로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센터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시술과 연구로 명성을 쌓았으며 이대동대문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제12회 일본가요대회 개최…축하공연

관람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마련

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과 일본관광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일본가요대회가 다음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 40세 미만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3일간의 예선을 거쳐 300명의 응모자 중 총 1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일반 공개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본선은 노래의 모든 소절을 부르게 되며 노래 반주 기계에서 나오는 가사는 볼 수 없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ANA항공 제공의 왕복 이코노미항공권 2매와 야마하 뮤직 코리아의 엠프일체형 사운드 프로젝터가 수여되며 일본대사관상에는 9박10일의 일본연수특전이 주어진다. 장려상·가창상·인기상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아티스트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지난해 '제사메구조'로 데뷔해 관능적인 음성과 단정한 용모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와카미 다이스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하룻밤의 꿈' '당신의 모든 것을' '아모레 에모레' 등 4곡을 부른다. 이토 가나코는 수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 'Find the blue' 'Hacking to the Gate' 'Tears Lamento' 'Topology' 등 4곡의 무대를 펼친다.

특히 관람객에게는 축하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추첨을 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765-3011 (내선110) jmc@so.mofa.go.jp

/신세미기자 Hansi404@

겨울 옷 파는 '역시즌 마케팅' 러시

이월상품·기획 신제품 등 종류도 다양

뜨거운 여름 속 겨울 옷이 날개를 달았다. 재고 부담을 줄이고자 유통업계는 겨울 옷을 저렴하게 내놓기 시작했다. 이월상품의 경우는 할인폭이 더 크다. 일렀다고 지혜로운 소비자라면 겨울 의류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역시즌 전에 주목해볼 일이다.

최근에는 이월상품을 파는 것 말고도 신제품을 기획 제작해 '역시즌 마케팅'을 벌이는 곳도 있다. 구스다운부터 퍼 점퍼까지 고가의 겨울상품을 반값 이하 가격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CJ오클락은 발 빠른 역시즌 마케팅으로 연일 단일상품 억 대 매출을 기록했다.

역시즌 마케팅은 보통 8월에 성수기를 맞는데 이곳은 올 여름이 전년보다 빨리 시작됐다는 점, 역시즌 마케팅이 매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여름인 6월 초순부터 역시즌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90만원에 육박하는 구스다운 상품을 30만원대에, 20만원대 여성코트는 90% 이상 할인한 1만원대에 선보였다.

6월 초 역시즌 첫 상품으로 내놓은 네파 패딩점퍼는 5억원이라는 누적매출을 올리며 역시즌 마케팅의 물꼬를 텄다. K2 헤비 덕다운자켓이 이틀 만에 3억원 매출을 올렸고 누적 매출이 8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김수현 덕다운'으로 유명한 지오지아 다운자켓 11종은 최대 77% 저렴한 6만9000원에 내놔 현재까지 700여개 판매고를 올렸다. 쉬즈미스의 전지현 패딩은 최대 83% 할인한 3만9000원대부터 판매됐다.

장경용 CJ오쇼핑 팀장은 "앞으로도 여름이 끝나는 8월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고품질 상품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합리적인 역시즌 상품을 통한 매출 극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패션 유통 기업 쿠팡도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로즈의 구스다운과 덕다운을 쿠팡을 통해 80% 가격을 낮춰 유통하면서 구스다운은 10만원대에, 덕다운은 3만원대에 내놨다.

쿠팡 제공

이번 기획전은 와일드로즈 다운류의 끝에 남성 브랜드 와일드로버 다운 류도 80% 저렴한 가격으로 선뵈 커플룩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다.

쿠팡에서는 전 상품 무료 배송과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을 이번 '역시즌전'을 통해 처음 진행한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와일드로즈 여름 티셔츠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칸투칸 역시 한정 수량으로 역시즌 마케팅을 벌인다. 회사는 7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375 헤비다운과 구스다운 펜츠 등 두 제품 모두 9만9800원에 내놨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역시즌 세일이 한창인 반면 이 회사의 역시즌 상품은 상대적으로 다운 값이 저렴한 겨울이 덜은 사들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획·제작된 제품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 회사의 역시즌 상품은 출시 6개월 동안 3만7000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이희승기자 kame0104@metroseoul.co.kr

열대야가 반가운 홈쇼핑 업계

생방송 연장·타깃층 공략 상품 편성 등 안간힘

홈쇼핑 업계가 열대야로 잠 못 드는 올빼미족을 통해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의 새벽 매출이 급증하는 '깜짝 실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4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새벽시간대 홈쇼핑 방송은 낮시간 방송에 비해 시청자가 줄어 녹화분이나 기존에 판매됐던 제품을 다시 선보이는 재방송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데다 열대야까지 나타나면서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TV시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홈쇼핑 방송의 노출 빈도도 높아졌다. 이는 고스란히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열대야 특수'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CJ오쇼핑의 경우 지난 17일 새벽 2시30분부터 선보인 '나탈리쉐즈 블라우스 세트'는 단 10분 만에 1000세트에 주문을 받으며 목표보다 50%를 초과 달성했다. 18일 새벽 1시 45분에 소개한 '크리스찬 레빗 퍼 롱코트'도 7분 만에 600장이나 팔려나갔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14일 하루의 심야 방송(새벽 1시~3시)에서 받은 주문은 전달 동기보다 57% 많았다고 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도 지난 19일 새벽 2시부터 소개한 '노랑풍선 홍콩 3일' 여행상품은 방송시간 60분 동안 6억원이 넘는 주문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매출

CJ오쇼핑 시크릿천스 방송 장면

목표 대비 223% 높은 달성률이다. 20일 새벽 2시 전파를 탄 '온누리투어 북해도 4일' 여행상품도 3억2000만원의 주문금액을 달성해 목표대비 175%의 성과를 올렸다.

GS샵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3일 새벽 2시부터 판매된 '폰에스커 비알라빼'은 방송 시작 한시간 만에 1억6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목표를 40% 이상 초과 달성하면서 올빼미족들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처럼 때 아닌 특수를 맞은 홈쇼핑 업계는 이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방송 시간 확대와 타깃 층 공략을 위한 새벽 시간대 관련 상품을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CJ오쇼핑의 경우 통상 새벽 1시에 끝나는 생방송을 1~2시간 연장 운영하는 심야 방송을 평균 2배에서 4~5배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패션 상품을 편성하고 할인을 강화해 잠 못 드는 여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해 전달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GS샵도 지난 21일부터 심야시간대 생방송 시간을 기존 새벽 2시까지에서 3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했다. 주요 상품으로 야식에 적합한 간식류와 여름철 건강식품, 시즌 특가 상품을 집중 편성하고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자사의 강세제품인 레저 여행상품을 집중적으로 새벽시간에 배치해 휴가 예정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정혜실기자 [illegible]

외식업계, '도깨비 날씨'에 이색 마케팅

폭염(暴炎)이 기승이다. 열대야 현상까지 일찍 찾아왔다. 장마도 늦어진데다 잦아졌다. 그치길 반복하는 일대성 소나기에 선뜻 집을 나서기 어렵게 한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가 이색 마케팅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리아는 최근 장마철과 어두운 밤길 안전 모두를 잡는 이색 아이템인 'LED 우산'을 준비했다. 유아용 LED 우산은 손잡이에 플래시 기능이 있으며 우산 살대에 있는 8개의 LED에서 무지개빛이 발산된다. 성인용 LED 우산도 손잡이는 플래시로 사용 가능하며, 우산봉에 있는 LED에서 밝은 빛이 나온다.

잠바주스는 바나나 우산을 9900원에 판매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3000원 할인된 가격인 6900원에 판다. 우산 구매 시 바나나 1개도 증정한다. 또 비 오는 날 바나나 우산을 쓰고 매장을 방문하면 음료 1개 구매 시 1개를 더 주는 1+1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13년 판매된 바나나 우산을 소지하고 매장을 방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스프링스는 7월 한 달간 '서머 레이니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평일 비 오는 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런치와 디너를 20%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 최대 2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클라라, '핫 바디' 공개

언더웨어 브랜드 휠라 인티모는 매거진 '슈어'에 클라라와 함께한 언더웨어 화보를 24일 공개했다.

섹슈얼한 느낌을 강조했던 기존 화보들과는 달리 이번 화보에서 클라라는 스포티 섹시를 콘셉트로 네온과 화려한 속옷을 매치해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다. 구릿빛 피부에 자연스러운 섹시미가 돋보이는 휠라 인티모의 브라톱과 브리프를 입은 클라라는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촬영장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미 넘치는 클라라의 언더웨어 화보는 매거진 슈어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휠라 인티모는 클라라 화보 공개를 기념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여름밤, 닭요리 만들어볼까

밤 늦도록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야식으로 자리잡은 치킨은 그 인기만큼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후라이드나 양념치킨 말고 좀 더 색다른 요리를 원한다면, 이런 치킨 요리는 어떨까? 이색적인 비주얼과 맛을 뽐내는 새로운 치킨 요리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콘테리치킨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13㎉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닭가슴살 200g, 베이컨 3장, 아메리칸치즈 2장, 감자 2개, 토마토 1/2개, 실파 1뿌리, 브로콜리 20g, 당근 1/4개, 애호박 1/4개

[양념]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간장 3/4컵, 꿀 3큰술, 마늘가루 1작은술, 생강가루 1/2작은술, 물 1컵, 우스터소스 1큰술

1. 닭고기를 분량의 양념 재료를 섞어 만든 소스에 10시간 동안 재운 후 210℃로 예열한 오븐에 굽는다.

2. 베이컨은 프라이팬에 바싹 구워낸다.

3. ①의 닭고기 위에 베이컨을 얹고, 아메리칸치즈 2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린다.

4. 토마토는 씨를 제거하고 1㎝×1㎝로 썰어서 ③위에 얹고 실파를 송송 썰어 올린다.

5. 감자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삶아 으깨서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6. 브로콜리는 큼직하게 썰고 당근은 얇게 채썰고 애호박은 2㎝×3㎝로 썰어 프라이팬에 볶아 소금·후춧가루 간을 한다.

7. ④를 접시에 담고 ⑤의 감자와 ⑥의 채소를 곁들인다.

◆치킨데리야끼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580㎉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닭가슴살 500g, 파인애플 2조각, 브로콜리 150g, 당근 150g, 밥 1공기, 청피망 1/2개, 계란 1개, 숙주 20g

[양념] 설탕 5큰술, 간장 1컵, 청주·물·참기름·식용유 각 약간

1. 데리야끼소스에 닭가슴살을 5시간쯤 재운다.

2. 프라이팬을 달궈 닭과 파인애플을 굽는다.

3. 브로콜리·컬리플라워·당근은 한 입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놓는다.

4. 청피망·홍피망을 1㎝ 정도로 작게 썰고 숙주는 다듬는다.

5. 달군 프라이팬에 ④을 넣고 볶다가 계란 푼 것을 넣고 계속 볶는다.

6. 밥을 넣고 밥이 눌지지 않도록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한 후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

7. 구운 닭가슴살, 파인애플, 데친 채소, 볶음밥을 먹음직스럽게 그릇에 올려 상에 낸다.

◆치킨너겟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 환영 / 열량: 240㎉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닭 안심 300g, 계란 1개, 녹말 1/2컵, 빵가루 4큰술

[양념] 양파즙 1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허니머스터드 약간

1. 닭 안심은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양파즙·소금·후춧가루를 넣어 잠시 재워 두었다가 간을 한다.

2. ①이 어느 정도 간이 되면 계란을 체쳐 버무린다.

3. ②를 밀가루·빵가루 순으로 묻혀 170℃ 정도의 기름에서 바삭하게 튀겨낸다.

5. 새콤달콤한 허니머스터드 소스를 만들어 곁들여 낸다.

특허로 무장하는 온라인 쇼핑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선점 위해 등록

점차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특허 등록이 급증해 업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원 클릭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아마존 왕국을 이룬 핵심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스템은 아마존이 1999년 9월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다. 결제·배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버가 저장하고 있어 카드번호 등의 입력 없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00년부터 애플이 라이선스비를 내고 아이튠즈에 적용하는 등 아마존뿐 아니라 많은 인터넷업계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해 준비하는 '예상배송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구매 내역, 희망구매목록, 마우스 커서가 머문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미리 예측해 포장 및 배송 초기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온라인 커머스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내 업체 특허도 줄 이어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최근 중요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 획득으로 우위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소셜 마켓 우영배(사진)는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단골가격제'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단골가격제는 반복구매 하는 구매자를 단골로 지정하고 가격을 깎아 주는 시스템이다. 반복해서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일반적인 소셜커머스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같은 제품을 구매하면 단골로 지정되면서 나만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고 소비자는 꾸준히 사용할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1월 정식 오픈한 '다이나믹 프라이스'에 적용된 가격 결정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이나믹 프라이스는 매일 아침 새로운 상품에 대해 7시부터 판매를 시작해 24시에 종료하는데 이 사이 구매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고객 참여형 가격 결정 서비스'가 특징이다.

매일 1~6분 사이의 다른 시간으로 그 날의 구간이 설정되며, 이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참여한 고객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고객 스스로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안혜신기자 hjung6404@metroseoul.co.kr

숲속창의력학교, 2기 학생 모집

게임중독 치유 – 다음달 8일까지 접수

경기 동두천 왕방산 산중턱에 마련된 기숙형 숲속창의력학교(www.dfcs.or.kr)가 2기 학생을 모집한다.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학교는 ▲사랑 ▲자연 ▲놀이 ▲노동 ▲참여 등의 5대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과 창의력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발농사와 목공, 먹거리 직접 만들기 등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배울 수 있으며 입학 뒤에는 무학년 시스템에 따라 개인별 맞춤식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생 10명과 중·고등학생 40명, 그리고 대학생 및 일반인 10명으로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김진중 숲속창의력학교 교장은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숲과 무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통해 학생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숲속창의력학교는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기자 hsou@

metro entertainment E

'쿨 & 핫' 차원이 다른 섹시함

너니 3집 '에이 토크'로 돌아온 현아

"발랄함 무기로 건강한 에너지"
'빨개요' 무대 몽키춤 선보여

섹시 아이콘 이란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현아(22)가 더욱 강력해졌다. 현아는 세 번째 미니앨범 '에이 토크'를 28일 발매하고 타이틀 곡 '빨개요'로 성숙한 매력을 선보인다. 2010년 첫 솔로 싱글 '체인지'를 시작해 '버블팝' '아이스크림' 등을 발표하며 귀여움과 섹시함의 야릇 매력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 선정성 논란에 시달렸지만 독보적인 아우라와 강렬한 에너지로 이제 가요계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1년 9개월만에 솔로로 돌아온 현아에게 '도전' '열정' '노력'이 묻어났다.

◆ 도전

섹시 아이콘 현아가 신곡 '빨개요'로 차원이 다른 섹시함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이 아닌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 가요계 정면 돌파를 노리고 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현아는 "섹시함을 극대화 하면서 건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며 "섹시하면서 유머러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아의 타이틀곡 '빨개요'는 강렬한 레드 컬러를 전면에 내세웠다. 에너제틱한 섹시발랄함은 주무기로 원숙미인 현아의 다양한 매력을 융화시켰다. 그는 "원숭이 춤인 '몽키 댄스'를 안무에 넣었다"며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는게 쉽지 않지만 나만의 색깔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저 또한 그래요. 심려받기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에게 좀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도전할 거예요. 이번 앨범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 열정

현아는 그룹 포미닛, 혼성 듀오 트러블 메이커, 솔로 활동은 물론 예능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다양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쉬지 않고 활동했고, 새로운 활동에 대해 부담감은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다"며 "'빨개요'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나올 때도 편하게 잠을 못잤는데 버텨내 보면 재미있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풀리긴 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덧붙였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만든 이번 앨범에도 남다른 열정이 담겨있다.

그는 "이번 앨범은 내 이야기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담았다. 특히 무대를 생각하면서 수록곡을 완성한 만큼 각기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수록곡 모두 장르가 다른데 프렌지키스는 레이디 가가와 마돈나 시티 등 해외 뮤지션과 협업해온 브레인 리와 4개월정도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록곡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비스트의 양요섭, '블랙리스트'는 그룹 EXID의 래퍼 LE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현아를 생각하면 딱 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국의 가수 겸 배우 리타 오라와 작업해 보고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 노력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마치 현아를 두고 나온 말 같다. 신인 가수부터 인기 걸그룹까지 섹시 콘셉트를 비장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아처럼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가수는 드물다.

현아는 "모든 가수들의 무대를 모니터링한다. 가수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좋은 부분은 배우려고 노력한다"며 "이번 솔로 활동을 앞두고 10년 전 선배님들의 무대까지 찾아봤다"고 말했다.

특히 현아는 이번 솔로 활동을 앞두고 댄서 오디션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 댄서 팀은 각자의 색깔과 콘셉트가 있다"며 "현아의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크루를 만들고자 진행했고, 함께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현아는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 SBS MTV '현아의 프리먼스'에서 이번 음반 작업 전 과정과 일상적인 모습을 공개한다. "음악방송이나 무대에서 3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너무 짧아요. 3분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앨범 수록곡 가사들은 어떻게 완성됐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다만 민낯으로 방송에 나가기 걱정이긴해요.(웃음)"

한편 현아는 25일 KBS2 '뮤직뱅크'에서 '빨개요'를 비롯한 스페셜 컴백무대를 갖고 가요계 여자 솔로 가수로서의 독보적인 영역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신원철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연예인 투잡 선택 아닌 필수?

노래·연기·예능 다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 본업보다 부업에서 두각 나타내는 경우도

최근 연예계에는 분야를 넘나드는 일명 '만능 엔터테이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기돌(연기하는 아이돌)을 안방극장·스크린·뮤지컬 무대에서 만나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연기자로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둔 1세대 아이돌은 신화의 에릭이다. 에릭은 지난 2007년 방송된 MBC '케세라세라'에 함께 출연했던 정유미와 KBS2 새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에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1세대 여자 아이돌은 겸업보다 전업을 택했다. 유진(S.E.S)과 성유리·옥주현(핑클)은 이제 가수보다 TV 프로그램 진행자와 뮤지컬 배우로 더 친숙해졌다. 슈(S.E.S)는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세 아이의 엄마로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2세대 아이돌 그룹 JYJ는 멤버 모두 겸업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중은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박유천은 SBS '쓰리데이즈'에 출연했다. 김준수는 뮤지컬 '디셈버'에 이어 '드라큘라'로 티켓 파워를 자랑 중이다.

1세대 아이돌부터 현재 활동 중인 그룹에 이르기까지 연기돌은 포화상태다. 하지만 연기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본업인 가수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일부 아이돌들이 연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아이돌을 그저 연기자가 되기 위한 관문쯤으로 여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본업보다 부업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로 데뷔한 서인국은 오히려 노래보다 연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인국은 tvN '응답하라 1997'에 이어 '고교처세왕'에 출연하며 여심 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은 그룹 활동보다 멤버 개인 활동에서 더 큰 성과를 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멤버 광희와 박형식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임시완은 드라마·영화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vN 'SNL 코리아 5' 나르샤(왼쪽)·강유미(오른쪽) /CJ E&M

KBS2 새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 정유미·에릭 /JS 픽쳐스

최근엔 김태한이 다음달 15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레볼루션2' 블록에 격투기 선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윤종신은 데뷔 26년차 가수지만 연령대가 낮은 시청자들에겐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재밌는 진행자로 더 익숙하다. 홍대 인디신의 가수 레이디제인은 음반 발매 대신 각종 케이블 채널의 고정 게널로 출연하며 엄답을 쌓아내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다. tvN 'SNL 코리아'에서 콩트 연기를 펼쳤던 강유미는 다섯 번째 시즌부터 작가로 변신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가로 활동했던 강유미는 지난 19일 방송부터 고정 연기자로 합류해 작가 겸 연기자로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시크릿 일본 버전 '유후' 발표

걸그룹 시크릿(사진)이 국내 음악시장을 넘어 일본 열도 공략에 나선다.

시크릿은 23일 일본에서 새 싱글 '유후'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현지 활동을 진행한다. 시크릿은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유후'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선보인 '레터 프롬 시크릿'의 타이틀 곡 '유후'를 일본어 버전으로 재탄생시킨 곡이다. 시크릿은 일본판 '유후'로 상큼 발랄한 안무와 무대를 선보이며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할 예정이다.

시크릿은 지난 19일과 21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성료된 일본 단독 콘서트 '2014 시크릿 서머 라이브 ~유후~'에서 선 공개해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시크릿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시크릿이 앞서 일본에서 발표한 '아이두 아이두' '마돈나'가 일본 음악 인기 차트 오리콘 데일리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새 앨범 '유후'도 러블리함과 귀여운 멜로디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크릿은 쏟아지는 걸그룹 홍수 속에서 8월 컴백을 목표로 새 음반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호기자 ysw@

크리스 브라운, JYJ와 작업

2집 수록곡 '발렌타인' 참여

그룹 JYJ(사진)의 새 앨범에 세계적인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의 곡이 실린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9일 발매되는 JYJ의 정규 2집 '저스트 어스'에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크리스 브라운의 곡 '발렌타인'이 실린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섹시한 가사가 JYJ의 보컬과 어우러진 곡으로 지난해 여름 미국 LA의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크리스 브라운과 글로벌 아티스트인 JYJ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3년 만에 발매하는 JYJ의 앨범에 크리스 브라운의 색깔이 더해져 어떠한 곡이 완성됐을지 기대감을 높이다.

'발렌타인'은 크리스 브라운과 그래미 노미네이션 프로듀서 로니 베리엄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됐다. 씨제스에 따르면 로니 베리엄은 "JYJ가 아닌 다른 가수가 이 곡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며 작업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소윤기자 sune@

유채영 암 투병 끝 41세 마감

"생전 밝았던 모습 오래 기억해주길"

배우 겸 가수 유채영(본명 김수진·사진)이 24일 오전 8시 위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41세. 노래·연기·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동료 연예인부터 팬까지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있다.

24일 유채영 측은 "지난해 10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유채영이 같은 달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투병했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복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발견하고 암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투병 중에도 MBC 라디오 '좋은 주말' DJ로 활약했던 유채영은 지난달 방송 하차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숨을 마감했다.

유족으로는 2008년에 결혼한 남편 김주환씨가 있다. 자녀는 없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이다. 유채영 측은 "위암 투병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유채영의 생전 밝았던 모습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973년생인 유채영은 안양예고 재학 당시인 1989년 그룹 '푼수들' 멤버로 데뷔했다. 1994년에는 혼성 그룹 쿨의 원년멤버로 데뷔, 파격적인 삭발 헤어스타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1995년에는 혼성 듀오 어스로 활동했으며 1999년부터는 솔로 가수로 '선언'에 '이모션' '이별유예' 등의 노래를 발표했다.

2002년에는 영화 '색즉시공'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다. 코믹한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그는 이후 드라마 '백만장자의 첫사랑하기'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 '패션왕' 등에서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했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모두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
ALL FOR ONE, ONE FOR ALL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
조선낭만활극
명품 드라마 <나인>의 콤비 김병수 연출 / 송재정 극본
8월 17일 [일] 첫 방송! tvN

AOA 여름 비밀휴가

걸그룹 AOA의 첫 번째 화보집 '핫서머'가 발매됐다.

AOA의 비밀 휴가를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108페이지에 달하는 AOA의 그림 같은 사진을 비롯해서 15분 가량의 메이킹 필름과 AOA 단체 포스터가 수록됐다. AOA 폴라로이드 사진 30장이 친필 사인과 함께 랜덤으로 포함돼 있다. /권상출기자

'1개월' 마마무 '15년차' 무대

플라이투더스카이 콘서트에 게스트로

주목받는 신예 걸그룹 마마무(사진)가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배가수의 콘서트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마마무는 26일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플라이투더스카이 콘서트에서 실력파 걸그룹다운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선배의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데뷔 1개월의 마마무가 15년차의 대선배 플라이투더스카이 콘서트에 출연하게 돼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플라이투더스카이 컴백 스페셜 콘서트 '컨티뉴엄'에는 DJ DOC 박재범·지나·AOA 게미·미에네임 등 쟁쟁한 가수들이 게스트로 노래했다.

마마무는 이 날 데뷔곡 'Mr.애매모호'를 부른다. 마마무는 "어릴 적부터 우상이었던 플라이투더스카이 선배님의 컴백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팬으로서 게스트에 초대돼 무한한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마무 측은 "플라이투더스카이 역시 최근 데뷔한 마마무의 무대를 본 후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후배로 지목하며 러브콜을 보냈다"고 전했다. 마마무는 'Mr.애매모호'의 새 버전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박재범 여름 시즌송 '나나' 발표

감미로운 멜로디로 젊은 여성 공략 나서

가수 박재범이 새 디지털싱글 '나나'로 돌아온다.

박재범은 25일 낮 12시 '나나'를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나나'는 지난 4월 발표한 '메트로놈' 이후 3개월 만의 신곡이다. 작곡은 박재범과 차차말론, 작사는 박재범과 로꼬가 맡았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한 여름 밤의 파티를 연상케하는 곡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로 젊은 여성들을 공략할 '나나'가 또 올 여름 시즌송으로 등극할지 주목되고 있다.

'나나'는 '메트로놈'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곡으로 달콤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재범은 tvN 'SNL 코리아 5'에서 고정 크루로 맹활약하며 특유의 개그 코드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 '댄싱9 시즌2'에서는 옆집 오빠 같은 편안함과 에너지 넘치는 댄스 마스터로 도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장성은기자 ysw@

영화·드라마 '사도세자' 조명

'사도' '비밀의 문'…56년 역사·궁중 미스터리 담아

영화 '사도' 송강호 유아인 /쇼박스 제공

영화와 드라마로 조선 비운의 부자 영조와 사도세자를 만난다.

영화 '사도'와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은 아버지가 외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극적인 사건을 재해석한다. 영화는 영조부터 사도세자, 정조까지 조선 왕조 3대에 초점을 맞춘다. 드라마는 의궤 살인사건이라는 궁중 미스터리로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내년 개봉 예정인 '사도'엔 송강호, 유아인이 출연한다. 지난 8일 촬영을 시작한 이 작품에서 송강호는 역경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를 연기한다. 사도세자 역은 최근 드라마 '밀회'로 인상적인 연기를 한 유아인이 맡았다.

연출을 맡은 이준익 감독은 "역사 속 인물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할 수 없다"며 "사도세자를 설명하는데 영조가 빠질 수 없고 영조를 이해하는 데도 사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도세자를 주제로 아버지 영조에서 그의 아들 정조에 이르는 56년의 역사를 담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인과관계를 조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비밀의 문'은 부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사도세자의 대립을 담는다. 여기에 의궤 관련 살인 사건이라는 궁중 미스터리를 더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배우 한석규는 SBS '뿌리깊은 나무'(2011) 이후 3년 만에 영조로 돌아온다. 사도세자 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훈이 거론된 게 전부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늘 제대 후 배우가 직접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출연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 한석규 /SBS 제공

가상 캐릭터도 등장한다. 김민종이 맡은 나철주는 조선 검계의 모든 살인자를 제압한 검계 중의 검계다. 밤의 제왕으로 불리는 칼잡이지만 연애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반전 매력을 지닌 순수한 인물이다. 작품은 '유혹'의 후속 작으로 9월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아이스 뮤지컬 '아나스타샤' 첫 내한

아이스 뮤지컬 '아나스타샤'가 다음달 22~2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처음으로 내한공연한다.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로 추앙받는 콘스탄틴 보얀스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스케이터를 모아 창단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팀의 '아나스타샤' 무대를 꾸민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약 60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친 베테랑 명품 팀이다.

1965년 세계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 정규 오페라 극장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공연을 선보이며 전 세계 관객으로 하여금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1990년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문화위원회로부터 국립극장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엘레나 베레즈니아야 예술 감독은 1998·1999년 세계 선수권대회 피겨스케이트 페어부분 금메달, 2001년 유럽 선수권 대회 페어부분 금메달, 2002년 스케이트 캐나다 페어부분 금메달, 2013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성공인 20' 상 등을 수상했다. 베레즈니아야 감독은 서울 공연에 아나스타샤 역으로 출연한다.

안무가로는 1991~1995년 소련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각종 대회에서 16개의 금메달과 20개의 은메달, 9개의 동메달을 수상한 바딤 아르코프가 나선다.

이외의 2011년 김연아 아이스쇼 '올댓스케이트'서머'에 참여한 피겨스타 이리나 슬루츠카야를 비롯해 미국의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피터 츠미세브 등도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e@

영화 '명량'의 이정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유해진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의 조연 출연진.

여름 한국영화 '조연 전성시대'

윤지혜·진구·이정현·유해진 등 강렬한 존재감

영화는 주연과 조연이 함께 만들어간다. 주연이 묵묵히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안 조연들은 그 이야기에 재미와 긴장으로 생동감을 더한다. 올 여름 한국영화의 공통점은 주연 못지않은 화려한 조연진을 자랑하는 '멀티캐스팅'이다. 조연의 활약 또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도: 민란의 시대'(감독 윤종빈)는 강동원, 하정우라는 걸출한 두 배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다. 이들과 함께 관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군도 패거리로 출연한 배우들이다. 이성민, 조진웅, 마동석, 윤지혜, 김재영, 이경영 등이 연기한 군도 패거리는 각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영화 속에서 맹활약을 펼친다. 특히 윤지혜가 연기한 유일한 홍일점 마향은 강인한 여전사이면서 모성애와 부드러움을 겸비한 인물로 관객들에게 강렬함을 남길 전망이다.

배우 진구와 이정현은 '명량'(감독 김한민)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다. '명량'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적과 맞서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최민식, 그리고 왜적 장수 구루지마 역을 맡은 류승룡의 연기 대결이 관심사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진구와 이정현의 열연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극중 조선의 탐망꾼 임준영과 그의 아내인 벙어리 정씨여인을 연기한 진구와 이정현은 전쟁의 긴박함 속에 애절함을 더했다. 진심어린 연기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감독 이석훈)의 숨겨진 주인공은 바로 유해진이다. 그는 극중 해적에서 산적으로 이직하는 인물 철봉 역을 맡아 오랜만에 코믹 연기를 마음껏 펼쳤다. 바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산적들에게 바다 속 물고기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유해진의 장기가 빛을 발한다. 과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극에 녹아드는 웃음으로 영화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해무'(감독 심성보)의 지원군은 연극 출신 배우들이다. 주연한 김윤석을 포함해 이희준, 문성근, 김상호, 유승목 등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배우들이다. 볼거리보다 인간군상의 드라마를 내세운 만큼 이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rn@metroseoul.co.kr

이제훈 24일 조용히 전역

영화·드라마 등 차기작 검토 중

배우 이제훈(사진)이 오는 24일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이제훈은 2012년 10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경찰홍보단에 배치돼 의무경찰로 복무해왔다.

이날 전역식은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24일 이제훈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사회 분위기 상 경찰청에서 조용히 전역하기를 바라 특별한 행사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제훈은 지난 2007년 영화 '밤은 그들만의 시간'으로 데뷔했다. 2011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제작한 장편영화 '파수꾼'에서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를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와 함께 첫사랑 연기를 펼쳐 스타덤에 올랐으며 '점쟁이들' '파파로티'와 드라마 '패션왕' 등에도 출연했다.

차기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소속사 차원에서 시나리오만 검토한 상황이며 전역 후 본인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차기작을 빨리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군도' 역대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

개봉 첫날 55만명 찾아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 감독 윤종빈)가 개봉 첫 날 55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을 세웠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도'는 개봉 첫 날인 23일 하루 동안에만 55만5254명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역대 오프닝 스코어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트랜스포머3'의 기록(54만1995명)을 훌쩍 넘는 기록이다. 또한 한국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지닌 '은밀하게 위대하게'(49만1553명)의 기록도 뛰어넘었다.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망할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하정우, 강동원을 비롯해 이성민, 조진웅, 마동석 등 호화 캐스팅으로 일찌감치 화제작으로 손꼽혔다. 배우들의 연기력과 화려한 액션, 웨스턴풍의 음악으로 오락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2'는 전작보다 많은 7만6025명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2위로 첫 등장했다. /장병호기자

조윤호, '비행기2' 홍보대사

"재미·교훈·감동까지 잡은 애니"

대세 개그맨 조윤호(사진)가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비행기2: 소방구조대'(이하 비행기2)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개그콘서트'의 '깐죽거리 잔혹사' 코너에서 "당황하지 말고 빡! 끝!"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조윤호는 최근 광고까지 섭렵하며 대세 개그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윤호의 비행기2 홍보대사 선정은 웃음과 함께 어린이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사됐다. 그는 "'비행기2'는 재미와 교훈은 물론 감동까지 잡은 애니메이션"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조윤호는 예고편 내레이션을 맡아 유쾌한 입담을 뽐냈으며 최초 시사회에도 참석해 관객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비행기2'는 레이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비행기 더스티가 엔진 고장으로 레이싱을 할 수 없게 되자 소방구조대의 길로 뛰어들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다음달 14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여름철 유행하는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후에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손을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5		4			2	
	7	8			2	9	6	
			4			8		
	6		3	7	5		1	
		3			1			
	8	7	2			3	5	
	1			5		7	4	
					3		8	

		9	3		2		7	
				1			9	
		4			8	2	3	
1			4			8		3
			1	7	5			
2		5			3			1
	2	3	5			9		
	5			9				
	7		2		6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도서 스도쿠 라이타트>(하이를 리오스 지음)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의 운명은?

권기봉의 도시산책 <53>

광화문에서 인사동 뒤쪽으로 걷다 보면 왼쪽으로 높다란 담장이 나온다. 성인 키의 두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2008년 이래 3만7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송현동의 이 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부지를 사들인 대한항공이 지하 7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나선 뒤이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밑장구를 치고 있다. 서울 옛 도심의 중심, 특히 경복궁과 가까운 곳에 고급호텔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부지 바로 옆에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제의 땅은 구한말 이래 늘 '손님'의 땅이었다. 1920년경 들어선 조선식산은행 직원 숙소가 그 시초다. 해방 뒤에도 굴곡진 운명은 이어졌다. 미군정 시설을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인 것이다. 만약 거기에 고급 호텔까지 들어서면 일반 시민의 접근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

예부터 송현동 일대는 지리적으로 동서로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를 잇고 남북으로는 인사동과 북촌을 이어주는 역사와 문화의 징검다리를 해온 곳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개발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민비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감고당(感古堂)이나 세종 때 처음 지어진 안동별궁(安洞別宮) 등의 흔적은 아스라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제3자가 남의 땅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기업과 시민 사이의 중재는커녕 일방의 이익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정부가 더욱 아쉽게 보인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호텔 숫자가 아니라 잘 보존된 역사문화 경관이 보장해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직·결혼 등 사주 전반 알고싶어요
직장운 있으나 성혼은 걸림돌 많아

Q 정사원' 여자 89년 5월 22일 양력 낮 12시15분

이번에 다니던 의류매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2의 롯데월드 건물이 타점해있는 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입사될지와 이상하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사주 관에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건 아닌지 어찌 운이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까지 할 수 있을는지도 제 사주 전반이 궁금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일도정진(一道精進)하는 끈기와 정성이 있는데 자주 경쟁국면에서 벌칠 면도 있어 좋게 얘기하면 지략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월(月)에서 신금(辛金)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넘 이후 이직의 기운이 있으며 내년부터 상당히 발전됩니다. 부부 궁이 관고(官庫)에 홍살이고 년월지에 충살작용으로 심하면 시들어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문 하는 불길한경우가 있어 상당히 신중해야겠습니다. 어느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옛날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이 항상 걱정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현자의 말을 듣고 걱정하는 것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은 쌓인 기운 중에 광채가 있는 것인 데 그것들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무한한 대기 가운데 있으니 어디에 부딪칠 상할 수가 있겠으며 땅도 여러 덩어리가 쌓여 하나의 큰 흙덩어리가 된 것뿐인데 아무리 발로 밟고 걸어가고 그것을 밟고 뛰더라도 종일 땅 위에서 걷기도 하고 서 있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까 걱정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걱정하던 사람은 근심이 풀려 크게 기뻐했다. "하늘과 땅이 괴멸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괴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저 하늘과 땅이 괴멸된다 해도 마찬가지이고, 괴멸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괴멸되고 괴멸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에 내가 무엇을 개의할 것이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기정사에 설명을 언급했으다. 위의 말처럼 걱정보다는 신심과 더불어 음덕을 쌓으면서 액운을 면해 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5일 (음 6월 2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자손들과 즐거운 시간 보낸다. **60년생** 원하는 대로 뭐이 풀리나 걱정 말라. **72년생**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면 잃는 게 많다. **84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무시할 것.

소 — **4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61년생** 계획은 장기화되니 대비하라. **73년생** 대세 거스르면 손해 부른다. **85년생** 운기 흐름이 좋으니 도전정신 발휘할 것.

호랑이 — **50년생** 방심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62년생** 신변의 좋은 변화 기대하라. **74년생** 서두르면 함정에 빠질한다. **86년생**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근심이 커지는구나.

토끼 — **51년생** 이럿시랑 실수 모른 척 할 것. **63년생** 한은 드니 유한군이 많다. **75년생** 배우자의 미툰 상처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 **87년생** 숨은 재능 발휘할 기회 온다.

용 — **52년생** 한꺼에 희소식 잇따른다. **64년생** 직장인은 저산에 문제없도록 할 것. **76년생** 추억이 그리운 옛 장소 방문한다. **88년생** 가끔 혼자도 괜찮으니 낙담 말라.

뱀 — **53년생** 몸은 피곤하나 마음은 편안~ **65년생** 모임에 가면 상처 받을 일 생긴다. **77년생** 오늘의 필수 잊고 내일위해 전진할 것. **89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말 — **42년생**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54년생** 도와주는 척하다 뒤통수치는 사람 조심~ **66년생** 인생에 여러 낚싯대 던지며 살아야 한다. **78년생** 튀는 행동 않도록~

양 — **43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 가까이 말라. **55년생** 약점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게 좋다. **67년생** 청춘은 지나갔지만 기술은 두근~ **79년생** 원하는 정보 손에 넣는다.

원숭이 — **44년생** 힘든 사람 도울 수 있어 즐겁다. **56년생** 단순한 것이 이기니 잔꾀리 싱거리. **68년생** 욕심은 천정하듯 없애야 한다. **80년생** 부모에 안부전화라도 꼭 하라.

닭 — **45년생** 지나 일은 그냥 지켜만 보라. **57년생** 가족에 보여 줄 것 보여 주어 즐겁다. **69년생** 갈등이 고치하니 매사 조심~ **81년생** 모임에 가면 특별한 경험한다.

개 — **46년생** 고민은 필털 기미 보인다. **58년생** 사랑 얻으려면 진정성 보여주라. **70년생** 말 잘하는 리더로는 충분치 않다. **82년생** 실수는 솔직히 시인하고 다음 생각할 것.

돼지 — **47년생** 남의 일에 참견 않도록 조심~ **59년생** 작은 것이 다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71년생** 부부싸움 뒤 화목하는 배우자 될 살펴라. **83년생** 헤매던 길을 찾는다.

류현진 선두탈환 선봉

28일 샌프란시스코 방문경기 서부 1위 분수령

'원정의 전사'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지구 선두 탈환을 위해 적진으로 들어간다.

류현진은 28일 오전 9시7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24일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가 밝혔다.

다저스는 한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인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1-6으로 패하며 1위 샌프란시스코(57승44패)와 2위 다저스(56승 47패)의 격차가 2경기로 벌어졌다. 다저스는 25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4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다저스는 26~28일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길 경우 지구 선두를 뺏을 수 있다. 후반기 판세를 가를 중요한 대결인 만큼 잭 그레인키, 클레이턴 커쇼, 류현진 등 다저스 '에이스 3인방'이 차례로 나선다.

통계만을 놓고 보면 류현진의 승리 확률은 높다. 류현진은 올 시즌 성적(11승 5패) 중 원정에서 7승 2패, 평균자책점 2.73을 기록했다. 홈에서 4승 3패, 평균자책점 4.13을 거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류현진에게 원정구장은 승리가 기다리는 곳이다. 류현진은 원정경기의 전사"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를 두 번 상대해 홈에서는 최악의 투구를 했고, 원정에서는 완벽히 마운드를 지켰다. 4월 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첫 맞대결에서 2이닝 8피안타 8실점(6자책점)했고, 2주 뒤 AT&T파크에서 재대결해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과 상대할 투수는 우완 유스메이로 페티트(30)다. 페티트는 올 시즌 선발로 6차례, 계투로 21차례 등판했다. 4월 18일 경기에 선발 매디슨 범가너의 뒤를 이어 나와 류현진과 대결한 바 있다. 당시 2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경기는 시즌 21번째 등판이다. 최근 2연승을 달리며 기분좋게 후반기를 시작한 류현진이 연승을 이어갈 경우 지난해 성적(14승 8패)에 더 근접하게 된다. 자신의 최다승 기록 경신은 물론, 박찬호가 2000년 다저스에서 기록한 한국인 투수 최다승(18승 10패)을 넘어설 확률도 높아진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30경기에 등판했다. 올 시즌 선발로 등판할 기회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전을 포함해 12경기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10월 파라과이 평가전 추진

축구 대표팀 9·10월 남미 세 팀 상대

한국 축구 대표팀이 9월에 이어 10월 평가전에서도 남미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4일 "파라과이 축구협회에 오는 10월 10일 평가전을 치르자고 제안을 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 평가전이 성사되면 한국 축구는 9월 5일 베네수엘라전을 시작으로 9월 9일 우루과이전에 이어 10월 10일 파라과이전까지 남미팀과 세 차례 맞붙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홈페이지에도 한국과 파라과이가 10월 10일 서울에서 평가전을 치른다는 일정이 게시돼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월과 10월 A매치 데이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각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및 2015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예선을 치르게 돼 어쩔 수 없이 평가전 상대를 남미와 북중미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는 2001년 3월 FIFA 랭킹이 8위까지 올랐던 남미의 축구 강호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꼴찌'의 수모를 겪으면서 48위까지 추락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활약하며 A매치 99경기(29골)에 빛나는 백전노장 공격수 로케 산타크루스(말라가)를 앞세운 파라과이는 한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1승3무1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장성준기자 yoyo@

이용수 축구협 새 기술위원장

"감독 선임 최우선"

대한축구협회 새 기술위원장에 선임된 이용수(55·사진) 세종대 교수가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4일 이 위원장은 "10여 년 전에 했던 일을 또 하게 됐다"며 "역시 급한 것은 대표팀 감독을 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위원장을 하겠다고 수락만 한 상태"라며 "아직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28일에 기술위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대표팀 감독 후보에 대해선 "국내 감독이냐 외국인 사령탑이냐를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술위원 선정 부분 역시 "어떤 사람들로 꾸릴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앞서 2000~2002년 기술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이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직을 맡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술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축구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한기자 ysjkim@

반 할 맨유 감독 화끈한 신고식

LA 갤럭시 상대 첫 경기서 7-0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루이스 반 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화끈한 데뷔전을 치렀다.

반 할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한 맨유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로즈 보울에서 열린 LA 갤럭시와의 친선경기에서 7-0 대승을 거뒀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스페인·브라질 등 강팀에 승리하며 3위를 차지한 반 할 감독은 같은 전술을 맨유에도 도입했다. 월드컵에서 위력을 인정받았던 스리백 시스템에 크리스 스몰링, 필 존스, 조니 에반스가 배치됐다.

루크 쇼와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윙백을 맡았고, 안드레 에레라와 대런 플레처가 미드필더로 나섰다. 웨인 루니, 대니 웰백, 후안 마타가 공격을 이끌었다.

맨유는 전반에 웰백이 선제골을 터트렸고, 루니가 페널티킥을 포함해 2골을 더했다.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리스 제임스와 애슐리 영이 각각 두 골씩을 터트렸다.

반 할 감독 외에 이번 시즌 맨유가 영입한 스페인 출신의 에레라도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에레라는 경기 내내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경기 종료 직전 날카로운 돌파와 절묘한 패스로 영의 두 골을 도왔다.

에레라는 맨유가 폴 스콜스의 은퇴 이후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공들여 영입한 선수다. 스페인 20세이하 청소년대표 등 연령대 대표팀을 차례로 거쳤다. 2011년부터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빌바오에서 팀의 주전으로 활약해 왔다.

라이언 긱스 코치는 "에레라는 스페인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기대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며 "맨유 일원으로 최고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24일

대한항공	3	2	한국전력
흥국생명	3	1	현대건설
LIG손해보험	3	0	OK저축은행

프로야구 전적 24일

■잠실

SK	002	310	010	7
두산	000	000	000	0

[illegible]

■대전

NC	501	243	033	23
한화	403	011	000	9

[illegible]

■광주

LG	205	005	640	8
KIA	100	010	000	2

[illegible]

■사직

삼성	010	411	001	17
롯데	000	010	000	1

[illegible]